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황 성 현**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신의 낮은 자아통제력,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 결핍 그리고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을 각 각 강조하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아통제이론,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이용하여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자아통제이론에서 제안된 변인들이며, 종속변인은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유무와 경험한 횟수로 측정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사회유대이론의 친구애착, 자아통제이론의 육체적 활동선호, 사회학습이론의 친구 음주·흡연변인으로 밝혀졌다. 5차년도 시점에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유대이론과 자아통제이론은 종속변인을 잘 설명하지 못한 반면, 사회학습 변인들은 청소년 음주행위의 9.7%, 흡연행위의 22.9% 변량을 설명하였다. 특히 3 가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회귀방정식에서 사회학습 변인들이 제외된 모델과 포함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사회학습 변인들이 제외된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회학습변인들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5년간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3가지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종단연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청소년 음주·흡연행위, 사회유대이론, 자아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 이 논문은 제 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 한국디지털대학교 청소년학과

I. 서 론

2007년 우리나라에서 검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수는 총 10,649명으로 전년도 7,711명에 비해 38.1%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는 1999년-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 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까지 약 7천명 선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에 다시 1만 명 선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8). 마약안전국 관별 여부가 되는 1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안전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섰으며 특히 청소년 시절 음주·흡연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은 28.08%, 월간 음주율은 16.84%로 나타났다며 13세에 처음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도 1998년의 4.3%에서 2005년에는 10.1%로 증가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처음 음주를 시작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월간 흡연율도 4.54%이며 15세-18세 청소년의 월간흡연율은 7.5%에 이른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가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청소년비행 전문가들은 음주·흡연행위를 지위비행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용어인 경비행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강도가 더 센 강성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입문약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음주·흡연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폐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규명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그 실태나 특성을 파악한 수준에 그친다. 내용면에서도 청소년비행 일반이론에 근거해서 왜 청소년들이 음주·흡연행위를 하는지? 그런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기 보다는 예방과 치료 측면에 치중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예방, 치료, 교육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자신이 음주와 흡연 유혹을 잘 극복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 환경적인 문제로 친구나 부모,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유대나 애착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와 흡연행위를 자주 하는 친구들과의 잦은 접촉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자신의 낮은 자아통제력(자아통제이론), 부모,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결핍(사회유대이론), 그리고 음주와 흡연행위를 자주 하는 친구들과의 잦은 교제(사회학습이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연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그런 행위의 원인을 밝혀내어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는 이론은 치료나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써 청소년 자신의 낮은 자아통제력,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유대감 결핍 그리고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을 각 각 강조하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자아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이용하여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기본 전제는 “비행이나 일탈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는 명제로부터 시작한다(Akers, 1998: 51).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학습된다.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s)’,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이라는 네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범죄와 비행, 일탈행동을 설명하고 있다(Akers, 1998: 60). 차별적 접촉은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 규범 등을 가진 원초집단의 구성원 또는 직접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된다. 정의는 주어진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한다. 일반

적으로 한 개인의 정의는 종교적, 도덕적,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비행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신도 그런 비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차별적 강화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처벌과 보상에 대한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균형을 의미한다. 즉 비행을 통해 긍정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부정적인 처벌이 회피될 때 특정 행위는 강화되고, 반면에 그 행위의 결과 처벌이라는 혐오스런 자극을 받거나 보상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처벌을 받게 될 때 그 행위는 약화된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모방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같은 원초집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발생된다.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이 지지를 받았던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특히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비행이나 일탈을 설명하려는 다른 이론들과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려는 시도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은 다른 이론들보다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이나 일탈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oeri et al., 2006; Hwang & Akers, 2003; Neff & Waite, 2007; Rebellon, 2002). 한편 유럽과 아시아권 국가에서 비행과 일탈을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은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이론으로 평가받았다(Bruinsma, 1992; Hwang & Akers, 2003; 2006; Junger-Tas, 1992; Kim & Koto, 2000).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를 설명했던 최근의 연구는 혼치 않다(유순화, 정규석, 2003; 이상균, 2002; 황성현, 2006; 2008). 유순화·정규석(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학습변인들이(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학교청소년의 음주·흡연 행동변량의 46%, 쉼터청소년 음주·흡연 변량의 56%를 설명하였고, 그 중 차별적 접촉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상균(2002)에 의해 실시된 청소년 흡연 행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학습변인인 차별적 강화와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한편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서, Hirschi는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의하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거나 깨어졌을 때 비행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Hirschi, 1969). Hirschi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이지만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친구나 부모 등의 일차

집단의 구성원들이나 학교와 직장 등의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유대이론은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애착은 타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는가, 얼마나 그들을 존경하여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 등의 정도를 말한다. 타인들과의 애착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의 현재 상황(이혼, 별거 등)이 어떠한가에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면 아이들은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여는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관습적 활동에 강하게 관여할수록 상대적으로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덜 참여하게 되고 반대로 관습적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부족하면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는 학교, 여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그 외 과외 활동 등과 같은 인습적인 활동에 열중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청소년들이 이런 인습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비행이나 일탈행동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념은 일반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인정, 특히 법과 사회규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런 신념이 없거나 약하다면 그들은 반사회적, 불법적 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구문화권에서 사회유대이론 또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증명되었다(Barman et al., 2004; Dorius, et al., 2004; Ford, 2005; Wang, 2006). 서구권이 아닌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도 사회유대이론은 비행과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Wang et al., 2002; Zhang & Messner, 1996), 인도에서(Hartjen & Kethineni, 1999), 이스라엘에서(Cohen & Zeira, 1999), 일본에서(Tanioka & Glaser, 1991), 터키에서(Özbay & Özean, 2006), 그리고 한국에서(Hwang & Akers, 2003; 2006)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를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증명되었다. 한편, 음주·흡연행위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비행을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으로 규명한 많은 국내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심미영·정규석, 2007; 임은희·서현숙, 2007; 전영실, 2003).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심미영·정규석(2007)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들은 각종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의 적응과 문제 및 비행과 관련성이 깊으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비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Gottfredson과 Hirschi의 비행 일반이론은 흔히 자아통제이론으로 불리는데, 자아통제이론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범죄와 일탈행위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각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의 결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자아통제이론은 어떤 특정한 범죄유형이나 문화권에만 한정되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모든 유형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비행의 일반이론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낮은 자아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90). Grasmick과 그의 동료들은(1993) Gottfredson과 Hirschi의 기본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아통제력을 측정하는 6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첫째, 매사에 충동적이고(impulsivity), 둘째, 그들은 부지런함과 집요함이 부족하여 단순작업을 선호하며(simple tasks), 셋째, 모험적이며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risk-seeking), 넷째, 육체적 활동을 좋아하며, 무엇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데 흥미가 없으며(physical activities), 다섯째, 자아 중심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무신경하며(self-centered), 여섯째, 인내심이 부족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말로 해결하기 보다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temper). 이런 낮은 자아통제력과 비행 및 범죄와의 깊은 관련성을 밝혀 낸 연구결과물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낮은 자아통제력이 여러 가지 비행 및 일탈행동의 원인이란 사실을 밝혔다(Beichler-Robertson et al., 2003; Morris et al., 2006; Stylianou, 2002; Unnever & Cornell, 2003). 자아통제이론은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짧은 기간에 비해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정자, 2005; 김재엽 외, 2007; 민수홍, 2006; 이성식, 2007; 조유정 외, 2005). 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민수홍(2006)의 연구에서 1차년도에 측정한 자기통제력은 2차년도에 측정한 청소년의 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일탈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으로 살펴 본 3가지 비행이론을 종합해 보면, 모든 비행의 일차적 원인과 책임

은 청소년 자신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서 청소년 자신의 낮은 자아통제력과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약한 유대관계가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고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자료이다. 중2 패널의 조사대상은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다. 표집방법으로는 층화다단계집단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전국에서 3,449명을 1차년도(2003년)에 수집하였다. 2차년도 이후의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선정된 3,449명의 청소년을 추적하여 개별면접한 결과 3,188명을 수집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3차년도에 3,125명, 4차년도에 3,121명, 5차년도에 2,967명을 수집하여 5차년도를 제외하면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여줬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차년도(2003년)부터 5차년도(2007)까지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인 및 자료분석 방법

1) 연구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관한 문항은 각 각 두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음주·흡연행위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유무

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회수로 측정하였다(흡연은 일일흡연량으로 측정). 흡연의 경우, 지난 1년간 흡연행위 발생횟수보다는 일일흡연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일일흡연량을 물어 보는 것이 지난 1년간 흡연량을 질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현재의 흡연유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유무와 발생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자아통제이론에서 제안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안된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6문항), 부모감독(4문항), 친구애착(4문항), 선생애착(3문항), 관여(5문항), 참여만족도(1문항), 구체적인 참여변인으로 수련활동(6문항), 자원봉사활동(7문항), 동아리활동(4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통제이론에서 제안된 독립변인으로 충동성(1문항), 단순작업선호(1문항), 위험추구 경향(1문항), 육체적 활동선호(3문항), 자아중심성(1문항), 급한 성미(3문항)를 사용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안된 독립변인으로 정의(1문항), 차별적 강화(2문항-공식적 지지와 주위사람들의 반응),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성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성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의 내용은 <표 2>로 제시하였다.

<표 1>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유무와 발생횟수 빈도표

	T1	T2	T3	T4	T5
1년간 흡연행위 유무	458명	334명	358명	428명	442명
1년간 흡연행위 발생횟수	343명	166명	143명	121명	96명
일일 흡연행위 발생횟수	110명	168명	215명	307명	346명
1년간 음주행위 유무	1,057명	925명	1,140명	1,404명	1,583명
1년간 음주행위 발생횟수	1,031명	922명	1,129명	1,401명	1,581명

<표 2> 연구 변인별 문항 수와 문항내용

영역	비행이론	변인	문항수와 번호	문항내용
종속 변인		음주·흡연여부	각 1문항(38:1, 2)	지난 1년간 담배피우기 발생여부 지난 1년간 술마시기 발생여부
		음주·흡연빈도	각 1문항(38:1, 2)	일일 흡연량 발생횟수 지난 1년간 술마시기 발생횟수
독립 변인	사회유대	부모애착	6 문항(33:1~6)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낸다.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눈다.
		부모감독	4 문항(33:7~9)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어 디에,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아신다.
		친구애착	4 문항(37:3:1~4)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 고 싶다. ~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 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선생애착	3 문항(35:4~6)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 기 할 수 있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관여	5 문항(12:1~5)	자기개발을 위해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 이다. ~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 를 받는다.
		참여만족도	1 문항(29)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련활동	6 문항(30:1~6)	체력증진활동 ~ 전통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7 문항(31:1~7)	일손돕기 ~ 지역사회개발활동
		동아리활동	4 문항(32:1~4)	교내공식동아리 ~ 사이버동아리
	자아통제	충동성	1 문항(34:1)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 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단순작업선호	1 문항(34:2)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만 곧 포기한다.
		위험추구경향	1 문항(34:3)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육체적활동선호	3 문항(49:3:1~3)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다. ~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움.
		자아중심성	1 문항(34:4)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밌다.
		급한성미	3 문항(49:3:4~6)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 이 든다. ~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회학습	법순응/위반정의	1 문항(36:3)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 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공식적저지	1 문항(36:5)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께 말썽을 드릴 것이다.
		주위사람의반응	2 문항 (49-1:11~12)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할 것이다. ~ 주위사람들로 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차별적접촉	각 1 문항 (37-6:1~2)	친구들 중에서 지난 1년간 술마시기와 담 배피우기를 한 인원 수

2)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분석 또한 두 가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첫째, 1차년도(T1)부터 5차년도(T5)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음주·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청소년들의 지속효과에 어떤 독립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5차년도(T5)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 결과에 어떤 독립변인들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양적 변수이고 종속변수가 이변량을 가진 비선형의 회귀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비슷하나 예측변수군의 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특성이거나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예측할 때 유용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3가지 비행이론의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첫째, 3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 각 각이 단독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 음주와 흡연행위를 설명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며, 둘째,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3가지 유형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켰다. <표 7>과 <표 8>의 회귀방정식은 모든 독립변인들이 한 회귀방정식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각의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회귀방정식에서 제시된 결정계수(R²)를 모든 독립변인들이 포함된 통합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R²)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종속변인인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친 3 가지 유형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표 6>에서 <표 8>까지의 회귀분석에 제시된 베타계수는 각 각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베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 유무자들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T1)부터 5차년도(T5)까지 연도별 청소년 음주·흡연행위 유무 분포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청소년 흡연행위 유무의 연도별 분포표

1차년도(T1) 458(13.3%)	2차년도(T2) 334(10.5%)	3차년도(T3) 358(11.5%)	4차년도(T4) 428(13.7%)	5차년도(T5) 442(14.9%)	지속효과
O(458명)	O	O	O	O	62명(13.5%)
X	O(135명)	O	O	O	35명(25.9%)
X	X	O(136명)	O	O	51명(37.5%)
X	X	X	O(116명)	O	56명(48.3%)
X	X	X	X	O(82명)	82명(100 %)

<표 3>에서 1차년도에 458명(13.3%)의 청소년들은 지난 1년 동안 흡연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2차년도에 334명, 3차년도에 358명, 4차년도에 428명, 5차년도에 442명 순으로 2차년도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약간 줄어들었다가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약 1.0%씩 늘어났다. 하지만 1차년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2차년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청소년의 수가 135명, 3차년도에 시작한 청소년은 136명, 4차년도에 116명, 5차년도에 82명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년도의 경우, 총 흡연자 334명 중에는 135명은 2차년도에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199명은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까지 담배를 피운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차년도의 경우, 총 흡연자 358명 중에서 136명은 처음 담배를 피운 청소년들이고 나머지 222명은 1차년도 또는 2차년도부터 담배를 피워 온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차년도의 458명 중에서 마지막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청소년의 숫자는 62명에 달한다. 2차년도에 시작한 135명 중에서 35명은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3차년도 136명 중 51명, 4차년도 116명 중 56명은 5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청소년 음주행위 유무의 년도별 분포표

1차년도(T1) 1057(30.6%)	2차년도(T2) 992(29.0%)	3차년도(T3) 1140(36.5%)	4차년도(T4) 1404(45.0%)	5차년도(T5) 1583(53.5%)	지속효과
O(1057명)	O	O	O	O	237(22.4%)
X	O(341명)	O	O	O	87(25.5%)
X	X	O(401명)	O	O	194(48.4%)
X	X	X	O(286명)	O	185(64.7%)
X	X	X	X	O(281명)	281(100 %)

<표 4>의 청소년 음주행위 비율은 <표 3>의 흡연행위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지만, 연도별 변화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띤다. 즉 청소년 음주비율은 T2부터 T5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지며(29.0% < 36.5% < 45.0% < 53.5%), 5차년도에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위 <표 3>과 <표 4>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은 5차년도 시점에서 지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음주·흡연행위를 한 청소년들, 즉 지속적인 음주·흡연 청소년들을 ‘1’로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0’로 선정) 집단과 비교하였다. 즉, <표 3>에서 T1에 흡연을 시작해 T5까지 지속한 청소년 62명, T2에서 T5까지 35명, T3에서 T5까지 51명, T4에서 T5까지 56명을 합한 총 204명의 청소년 집단과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청소년 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표 4>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의 지속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5시점에서 지난 1년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총 703명을, 그렇지 않은 나머지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5>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음주지속			흡연지속		
	B	Wald	Exp (B)	B	Wald	Exp (B)
<u>통제변인</u>						
성(sex)	.12	1.50	1.13	.44	5.51*	1.55
<u>사회유대이론</u>						
부모애착	-.02	1.40	.99	-.03	1.74	.97
친구애착	.06	6.94**	1.06	.10	7.90**	1.10
선생애착	.02	.26	1.01	-.02	.21	.99
부모감독	-.01	.01	.99	-.05	2.93	.95
관여	-.02	3.25	.98	-.01	.06	1.00
참여만족도	-.05	.79	.95	.15	2.01	1.16
수련활동	.09	1.92	1.09	-.04	.11	.96
자원봉사활동	-.24	8.20**	.78	-.26	2.48	.77
동아리활동	.25	11.69**	1.29	.12	.91	1.12
<u>자아통제이론</u>						
충동성	.10	4.59	1.11	.11	1.85	1.12
단순작업선호	-.02	.17	.98	.01	.01	1.01
위험추구경향	.19	14.82***	1.21	.17	3.85	1.18
자아중심성	-.06	1.28	.94	-.02	.07	.98
육체적 활동선호	.11	17.09***	1.12	.19	15.93**	1.21
급한 성미	-.02	1.15	.98	-.04	.90	.97
<u>사회학습이론</u>						
범순응/위반 정의	.02	.24	1.02	-.04	.30	.96
공식적 저지	-.10	3.13	.91	-.20	4.12*	.82
주위의 반응	.03	1.26	1.03	.02	.26	1.02
친구음주·흡연	.18	186.28***	1.19	.20	101.77***	1.22
예측성공율		75.6%			93.4%	
-2 Log Likelihood		2695.97			1125.13	
Model χ^2		439.93***			279.56***	

*** p< .001, ** p< .01, * p< .05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음주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친구애착,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위험추구 경향, 육체적 활동 선호, 친구음주 변인들이다. 모델의 적합도(439.93^{***})가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류한 정도는 75.6%였다. 독립변인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애착정도, 동아리활동여부, 위험한 행동을 추구하는 정도,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정도, 친한 친구들이 음주행위를 하는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청소년 자신이 음주를 지속할 가능성은 각각 6%, 29%, 21%, 12%,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흡연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성별, 친구애착, 육체적 활동 선호, 공식적 저지, 친구흡연 변인들이다. 흡연행위에 대한 모델 적합도(279.56^{***}) 또한 99.9%의 신뢰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청소년흡연행위에 관한 관찰값을 기준으로 예측값을 정확하게 판별한 예측성공율은 93.4%로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친구들과의 애착 정도,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정도, 친한 친구의 흡연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청소년 자신이 1년 이상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은 각각 55%, 10%, 21%,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행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사회유대이론의 친구애착, 자아통제이론의 육체적 활동 선호,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음주·흡연 변인으로 밝혀졌다.

<표 6>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음주행위	흡연행위
<u>사회유대 변인</u>		
부모애착	-.065**	-.081**
친구애착	.089***	.027
선생애착	-.020	-.001
부모감독	-.055*	-.078**
관여	-.063**	-.060**
참여만족도	.023	.027
수련활동	-.007	.034
자원봉사활동	-.043*	-.039
동아리활동	.070***	.030
결정계수(R ²)	.027	.027
사례수 (N)	2,902	2,808
<u>자아통제 변인</u>		
충동성	.054**	.091***
단순작업선호	-.055**	-.041*
위험추구경향	.087***	.092***
자아중심성	.043*	.006
육체적 활동선호	.140***	.119***
급한 성미	-.008	.023
결정계수(R ²)	.046	.046
사례수 (N)	2,955	2,861
<u>사회학습 변인</u>		
법순응/위반 정의	-.018	.015
공식적 저지	-.053**	-.074***
주위의 반응	-.021	-.012
친구 음주·흡연	.296***	.468***
결정계수(R ²)	.097	.229
사례수 (N)	2,955	2,861

*** p< .001, ** p< .01, * p< .05

다음으로, 5차년도(T5)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3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단독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 음주와 흡연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회귀분석결과, <표 6>의 상단부에서 독립변인인 사회

유대변인들은 청소년 음주행위의 2.7%와 흡연행위의 2.7%를 설명하고 있다. 9 가지 변인 중에서 부모애착, 부모감독, 관여 변인은 음주와 흡연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모감독,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변인은 음주행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흡연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유대이론에서 추출된 9가지 변인들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6>의 중반부에서 자아통제 변인 또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4.6%를 각 각 설명하고 있다. 6 가지 변인 중에서 급한 성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독립변인들은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음주·흡연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아통제이론 또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4.6%만 설명할 뿐, 나머지 95.4%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제이론의 독립변인 또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표 6>의 하단부에서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 음주행위의 9.7%를 흡연행위의 2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지 변인 중에서 공식적 저지와 친구음주·흡연 변인은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친구가 음주·흡연행위를 하면 청소년 자신도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친구음주·흡연변인은 전체 독립변인 중에서 종속변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표 7>과 <표 8>은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3가지 유형의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회귀방정식에 회귀시킨 결과표이다. <표 7>과 <표 8>의 모델 1은 모든 독립변인들이 포함된 회귀방정식이며 모델 2부터 4까지는 통합모델1에서 순차적으로 사회학습 변인, 자아통제 변인, 사회유대변인들이 제외된 회귀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7>의 모델 1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청소년 음주행위 변량의 14.0%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된 모델 2는 7.5%, 자아통제이론이 제외된 모델 3은 12.1%, 사회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4는 12.3%를 각 각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학습 변인들이 포함된 모델 3과 4는 전체 통합모델의 결정계수와 비교해 볼 때 약 2%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사회학습 변인들이 제외된 모델 2에서는 약 6.5%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3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변인 중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청소년 음주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구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청소년들이, 친구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열망이 낮을수록, 동아리활동을 많이 할수록, 위험추구를 선호할수록, 육체적 활동을 선호할수록, 공식적 저지가 적을수록, 친한 친구가 음주행위를 하면 할수록 청소년 자신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체 독립변인 중에서 친구의 음주행위가 청소년자신의 음주행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체적 활동의 선호도,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이, 친구와의 애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7> 청소년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변인들의 통합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성별	.069***	.104***	.078***	.062***
부모애착	-.037	-.042	-.048*	
친구애착	.071***	.086***	.074***	
선생애착	-.007	-.018	-.011	
부모감독	.001	-.022	-.007	
관여	-.049**	-.069***	-.044*	
참여만족도	.028	.017	.025	
수련활동	-.015	-.015	-.014	
자원봉사활동	-.030	-.033	-.035	
동아리활동	.040*	-.064**	.040*	
충동성	.003	.031		.015
단순작업선호	-.005	-.026		-.019
위험추구경향	.052**	.064**		.068***
자아중심성	.032	.047*		.020
육체적 활동선호	.089***	.115***		.102***
급한 성미	.021	.019		.005
법순응/위반 정의	.004		.008	-.018
공식적 저지	-.046*		-.055**	-.036
주위의 반응	-.021		-.011	-.030
친구 음주	.259***		.281***	.259***
결정계수(R ²)	.140	.075	.121	.123
사례수 (N)	2,902	2,902	2,902	2,955

*** p< .001, ** p< .01, * p< .05

청소년 흡연행위의 회귀방정식을 나타낸 <표 8>에서 모든 독립변인들은 청소년 흡연행위 변량의 25.5%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이 제외된 모델 2는 8.7%, 자아통제이론이 제외된 모델 3은 24.1%, 사회유대이론이 제외된 모델 4는 25.0%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표 7>의 청소년 음주행위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학습이론이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모델과 제외된 모델의 결정계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학습 변인이 포함된 모델 3과 4를 모델 1과 비교해 볼 때, 약 1%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학습 변인이 제외됐을 때는 16.8%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 흡연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흡연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친구 흡연 변인이며, 그 다음으로 성별, 육체적 활동 선호, 위험추구 경향, 공식적 저지, 부모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표 7>과 <표 8>을 종합하면, 3 가지 이론에서 제안된 독립변인들 중에서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친구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공식적 저지 변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유대 변인 중에서는 친구애착, 관여, 동아리활동 변인이 청소년 음주행위를 통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애착 변인이 청소년 흡연행위를 잘 설명했다. 자아통제변인 중에서는 위험추구 경향과 육체적 활동 선호 변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표 8> 청소년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유대, 자아통제,
사회학습변인들의 통합 회귀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성별	.078***	.151***	.085***	.075***
부모애착	-.044*	-.059*	-.047*	
친구애착	.022	.023	.030	
선생애착	-.004	-.008	-.010	
부모감독	-.018	-.034	-.029	
관여	-.024	-.064***	-.024	
참여만족도	.020	.015	.020	
수련활동	.015	.020	.018	
자원봉사활동	-.016	-.029	-.019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동아리활동	.010	.022	.014	
충동성	.044*	.079***		.038*
단순작업선호	-.013	-.030		-.001
위험추구경향	.063**	.079***		.066***
자아중심성	-.036	-.015		-.030
육체적 활동선호	.070**	.104***		.069**
급한 성미	.020	.028		.029
법순응/위반 정의	.014		.020	.014
공식적 저지	-.046*		-.056**	-.055**
주위의 반응	-.016		-.007	-.023
친구 흡연	.424***		.441***	.434***
결정계수(R ²)	.255	.087	.241	.250
사례수 (N)	2,808	2,808	2,808	2,861

***p < .001, ** p< .01, * p< .05

V. 결 론

2003년(T1)부터 2007년(T5)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으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학습 변인에서 추출된 친구집단의 음주·흡연행위이며, T5시점에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학습 변인들, 특히 친구의 음주·흡연 변인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를 살펴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으로 사회유대이론 중에서는 친구애착 변인이, 자아통제이론 중에서는 육체적 활동 선호 변인이, 사회학습이론 중에서는 친구 음주·흡연 변인으로 밝혀졌다. T5시점에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유대 변인

과 자아통제 변인들은 각 각 종속변인 변량의 2.7%, 4.6% 만을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은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회 학습변인들은 청소년 음주행위의 9.7%, 흡연행위의 22.9% 변량을 설명함으로써, 3 가지 유형의 독립변인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 가지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4 가지 회귀방정식에서 사회학습변인들이 제외된 모델과 포함된 모델을 비교해 볼 때, 사회학습변인들이 통합모델에서 제외될 때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회학습 변인들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사회유대 변인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애착과 친구애착 변인이, 자아통제 변인 중에서는 위험추구 경향과 육체적 활동 선호 변인이, 사회 학습 변인 중에서는 공식적 저지와 친구 음주·흡연변인이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친한 친구의 음주·흡연 여부가 청소년 자신의 음주·흡연 행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 일반이론을 적용한 논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패널자료의 설문내용이 3가지 비행 일반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을 다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론들의 핵심요소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서구의 비행 일반이론에 바탕을 둔 변인들을 추출하여 한국 청소년들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유순화, 정규석, 2003; 이상균, 2003; Hwang & Akers, 2003; 2006)와 일치된다.

이 연구가 지니는 중요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3 가지 요인들을 추출하여 그 각각의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인 외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친구집단과 부모의 영향력 중 어느 쪽이 강한지를 밝히려는 시도는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논의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적 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밝혀 줄

종단적 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차후연구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친구집단과 부모의 영향력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한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비행일반이론에서 제안된 독립변인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한 연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연구에 사용된 사회학습 변인 중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음주·흡연행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반적 약물남용에 관한 예방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2호, pp. 1-17.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 청소년 백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재엽·이효정·강민지(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6호, pp. 173-201.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 27-47.
- 심미영·정규석(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3호, pp. 147-171.
- 유순화·정규석(2003). 청소년 음주·흡연에 관한 사회학습이론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pp. 195-214.
- 이상균(2002).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제6권, pp. 77-94.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2호, pp. 159-181.
- 임은희·서현숙(2007). 성역할 정체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사회통제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3호, pp. 53-78.
- 전영실(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가족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313-347.
- 조유정·석주영·박인전(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 133-164.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8). 아름다운 젊음, spring 2008, Vol. 48.
- 황성현(2006). 낮은 자아통제감, 친구집단요인, 부모요인이 청소년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1호, pp. 129-154.
- 황성현(2008).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3집, pp. 5-29.
- Akers, R, L.(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rman, S. K., Pulkkinen, L., Kaprio, J., & Rose, R. J.(2004). Inattentiveness, parental smoking and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Addiction*, Vol. 99, pp. 1049-1061.
- Beichler-Robertson, G., Potchak, M. C., & Tibbetts, S.(2003). Low self-control, opportunity, and strain in students' reported cheating behavior,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Vol. 26, pp. 23-53.
- Boeri, M. W., Sterk, C. E., & Elifson, K. W.(2006). Baby boomer drug users: career phases,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y, *Sociological Inquiry*, Vol. 76, pp. 264-291.
- Bruinsma, G. J. N.(1992).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reconsidered: an extension and its empirical tes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8, pp. 29-49.
- Cohen, B., & Zeira, R.(1999). Social control,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among Kibbutz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 Comparative Criminology*, Vol. 43, pp. 505-513.
- Dorius, C., Bahr, S. J., Hoffmann, J. P., & Harmon, E. L.(2004). Parenting practic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and adolescent marijuana 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pp. 163-178.
- Ford, A. J.(2005). Substance use, the social bond,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Inquiry*, Vol. 75, pp. 109-128.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neklev, B. 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5-29.
- Hartjen, A. C., & Kethineni, S.(1999). Exploring the etiology of delinquency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Crime & Justice*, Vol. 22, pp. 55-90.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S. H., & Akers, R. L.(2003). Substance use by Korean adolescents: A

- Cross-Cultural test of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theories, pp. 39-64 in Ronald Akers and Gary F. Jensen(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1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Hwang, S. H., & Akers, R. L.(2006).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drug use in Korea,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1, pp. 51-69.
- Junger-Tas, J.(1992). An empirical test of social control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8, pp. 9-29.
- Kim, T. E., & Goto, S. G.(2000). Peer delinquency and parental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Asian American adolescent delinquency, *Deviant Behavior*, Vol. 21, pp. 331-348.
- Morris, D. G., Wood, P. B., & Dunaway, R. G.(2006). Self-control, native traditionalism, and native American substance use: testing the cultural invariance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Crime & Delinquency*, Vol. 52, pp. 572-598.
- Neff, J. L., & Waite, D. E.(2007). Male versus female substance abuse patterns among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Comparing strain and social learning variables, *Justice Quarterly*, Vol. 24, pp. 106-132.
- Özbay, Ö., & Özcan, Y. Z.(2006). A test of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juvenile delinquency in the high schools of Ankara,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Vol. 50, pp. 711-726.
- Rebellon, C. J.(2002). Reconsidering the broken homes/delinquency relationship and exploring its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Vol. 40, pp. 103-136.
- Stylianou, S.(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s and manifestations of low self-control in a general theory of crime: Two comments and a test, *Deviant Behavior*, Vol. 23, pp. 31-57.
- Tanioka, I., & Glaser, D.(1991). School uniforms, routine activities, and the social control of delinquency in Japan, *Youth & Society*, Vol. 23, pp. 50-75.
- Unnever, J. D., & Cornell, D. G.(2003). Bullying, Self-Control, and ADH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8, pp. 129-147.

- Wang, G. Z.(2006). *Tobacco, alcohol, and marijuana/drug use among school children: testing Hirschi's social bonding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Quebec, Canada.
- Wang, T. G., Qiao, H., Hong, S., & Zhang, J.(2002). Adolescent social bond, self control and deviant behavior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Sociology*, Vol. 39, pp. 52-68.
- Zhang, L., & Messner, S. F.(1996). School attachment and official delinquency statu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ciological Forum*, Vol. 11, pp. 285-303.

ABSTRACT

A Study of Social Bonding,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on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Adolescent

Hwang, Sung-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using variables from Hirschi's social bonding, Gottfredson and Hirschi's self-control, and Akers' social learning theories as they apply to Korean adolescents. The analysis and findings reported here are derived from data extracted from the Korean Youth Panel Data from a sample of about 3,400 Korean adolescents from 2003 to 2007.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 that friends' attachment derive from social bonding variables, physical activities from self-control variables, and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 from social learning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 However,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s that variables from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theories do not support the ideas surrounding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 but social learning variables have strong effects upon those behavior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also explore the notion that without the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variables, there is very little loss of explained variance when these variables are removed from the full equation. We see that when the social learning factors are eliminated from the equation, the change in R² is dramatic. That is, only in Model 2 of table 7 and 8, which has no social learning variables, is there a large reduction in explained variance compared to the full Model 1. This result supported the idea that social learning variables had the

* Korea Digital University

strongest effect on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 drinking and smoking of Korean adolescents, social bonding theory,
self-control theory, social learning theory.

투고일 : 12월 2일, 심사일 : 1월 21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

